

#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개발

## A Validity Study of an Instrument for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강사 鄭苑珠  
교수 尹鍾姬

Dept. of Family Welfare & Community Services DongDuk Women's University

Lecturer : Chung, Won-Joo

Prof. : Yoon, Chong-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 which measures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The first 89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a pilot study of 129 children with open questions. The final 75 items were selected using the data from subjects of 500 4th-, 5th- and 6th-grade children living in Seoul. The main study was conducted on March 5-10, 1997.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

The resulting nine categorical factors of 75 items instrument for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were as follows: positive revaluation of the situation, emotional aggression, problem-facing behavior, information search for problem-solving, emotion-converting behavior, avoidance, seeking spiritual support, physical separation for emotional relaxation, emotional expression.

The 9-factor, 75-item scale explains 60.9% of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and its value of Cronbach's  $\alpha$  is .95.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성인들만의 문제로 보거나 기껏해야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들의 문제로 보는 등 한정된 연구 시각에 머물고 있으며 아동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긴장, 즉 스트레스 상태에 직면하기(Brenner, 1984; Kagan, 1983; Selye, 1976) 때문에 아동기가 근심이 없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시기라는 가설이 더 이상 지지되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들도 마치 어른처럼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최근에 와서야 시도되고 있다(송의열, 1995; 오명희, 1994; 윤유경, 1990; 이정미, 1996; 천민필, 1993; 한상근, 1993).

아동들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성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아동기는 성인기와 달리 아직 발달하는 과정이고, 또 주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 하기가 힘들고,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Medeiros, Poter & Wilcox, 1983)는 점에서 성인보다 더욱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아동에 따라 대처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며 스트레스 증상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적응을 가져온다는(Moos & Billings, 1982)것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로부터의 완전한 도피는 죽음뿐이므로(이소은, 1990) 스트레스의 경험여부보다는 스트레

스에 대해 어떠한 대처행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가 없어 외국의 것을 번안하여 그대로 쓰거나, 대상이 아동임에도 성인의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측정된 연구결과 역시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으며 부차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아동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개념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과용되다시피 널리 쉽고도 단순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학자들간에 일치된 개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양병환, 1991). 스트레스를 개념에 따라 분류해 보면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매개변인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스트레스 경험은 자극에서 반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 개념들을 연구자들은 각자의 학문적 배경과 연구 목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정의를 채택하기도 하고 서로 교환하여 통용하기도 한다(양병환, 1991).

스트레스 개념이 다양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대처행동의 개념도 다양하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된다. 즉,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건간에 이에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수준에서의 대

처행동이란 직접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행하는 모든 반응을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된다(Silver & Wortman, 1980, 이소은, 1990, 재인용).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자극에 대한 본능적이거나 반사적 반응도 포함하여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반박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으로는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반응만을 포함시켜야하며, 반사적이거나 자동적인 반응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여 대처행동이란 개인의 자원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어떤 특별한 내, 외적요구를 다루려는 끊임없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하며, 그 결과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모든 목적적인 시도를 포함한다고 본 학자들도 있다(Lazarus & Folkman, 1984).

한편 대처행동을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Moos & Billings, 1984)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거나 또는 정서적 고통을 조정하여 삶과 환경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노력(전성혜, 1989)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고자 행하는 효율성과는 관계없는 한 개인의 모든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2.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대처행동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먼저 Folkman과 Lazarus(1980)는 대처유형을 문제지향적과 정서지향적으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Moos와 Billings(1984)는 Folkman과 Lazarus의 대처유형에 평가지향적 대처유형을 첨가하였다.

이외에도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로(Gutmann, 1964, 김영교, 1995, 재인용) 나누기도 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직접적으로 취하는 행동, 스트레스 요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 스트레스 요인을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도피하는 행동으로(Frederic, 1980) 나누기도 한다.

이와같이 성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스트레스의 유형은 물론 대처행동도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리라 가정된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의 이론을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몇몇 연구자들이(Band & Weisz, 1988; Compas, Malcam & Fondacaro, 1988) 아동의 대처행동을 체계화, 개념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면접이나 비구조화된 질문지법으로 이들의 대처행동을 개념화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다.

Compas와 그의 동료들(1988)은 국민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법을 사용해 학업적,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행동과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의 관련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사회적 스트레스보다 학업 스트레스의 원인을 더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은 문제 지향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해 더 정서지향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업적 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은 정서지향적 대처행동을 사용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통제가능성의 정도와 대처행동간의 불일치는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한 상황에서 더 많은 문제지향적 대처를 산출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나타냈다.

Band와 Weisz (1988)는 6, 9,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법을 사용하여 친구와 헤어지기,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가기, 학업실패 등 6개의 구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대처를 Lazarus와 Folkman(1984)의 문제지향적, 정서지향적 유형과 그들 자신의 1차-2차 통제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이들이 나눈 대처방식은 1차적 통제대응책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바꾸려하는 것

(changing the world)이며, 스트레스원(사람, 대상, 상황, 사건)에 영향을 주려하거나 수정을 가하려는 노력이 포함된 것이다. 2차적 통제 대응책은 개인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changing the self)으로 미래의 실망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즉, 자신의 기대를 저하시키거나 사건의 의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불행한 사건을 재해석하려는 것이다.

또한 처음에 2차적 통제대응책에 포함했던 철회 통제 대응책은 처벌을 줄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고양시키려는 명백한 노력이나 목적지향적 행동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분석하는중 아동의 반응의 40%가 Lazarus와 Folkman에 의해 제시된 성인방식의 대처 범주에 들지않아서, 아동의 반응을 반영하는 새로운 범주들을 개발했는데 이들은 1차적 통제대응책을 세부적으로 직접적 문제해결, 문제중심적 울기, 문제중심적 공격, 문제중심적 회피로 분류했으며 2차적 통제대응책은 사회정신적 지지, 감정중심적 울기, 감정중심적 공격, 인지적 회피, 순수인지(pure cognition : 공상이나 소망적 사고포함)로 나누었고, 철회통제 대응책은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연구결과 아동 대처 반응의 단지 3.5%만이 통제포기로 분류됨으로써 아동들이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능동적 노력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대처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보다 통제가 가능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문제지향적 성격을 띠는 1차적 대처행동을 주로 사용하고 통제가 어려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서지향적 대처의 성격을 갖는 2차적 대처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친구와 헤어지기, 친구와의 갈등, 학업실패는 이들 사건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병원에 가거나 성인과의 갈등보다는 좀더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수의 1차적 대처행동을 보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 연령에 따라서도 대처방식은 차이를 보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차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감소하고 2차적 대처방식이 증가하였다.

최근들어 Ryan-Wenger(1992)는 아동의 대처행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Lazarus와 Folkman(1984)

의 대처행동 정의에 바탕을 두고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행해진 16개의 아동 대처행동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처항목을 내용과 요인분석을 통해 아동의 대처행동을 1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그에 의한 대처행동의 분류는 공격적 활동, 행동적 회피, 행동적 기분전환, 인지적 회피, 인지적 방심, 인지적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조화, 감정표현, 인내, 정보추구, 고립활동, 자아 통제활동, 사회적 지지, 영적 지지, 스트레스 요인 수정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격적 활동: 사람, 동물 또는 물체에 해로움이 될 수 있는 언어적, 운동적 활동-언어적 공격 행동, 신체적 공격행동, 운동적 공격행동, 파괴, 소리치기, 간접적 분노표시.
2. 행동적 회피: 자신을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멀리하려는 계획된 시도로써 고립과는 다른 행동-도피, 가족과 사회적 도피, 잠, 회피, 아무 것도 하지 않음, 딴 곳으로 감.
3. 행동적 기분전환: 스트레스를 다뤄갈 필요성을 미루는 고립이나 회피와는 다른 행동-기분전환, TV보기, 혼자놀이, 음악듣기 등 조용한 활동, 격렬한 활동.
4. 인지적 회피: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피하려는 계획된 인지적 시도-스트레스 상황을 부인, 거부, 무시, 잊음
5. 인지적 방심: 생각을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한 계획된 인지적 시도-방심, 공상, 유머, 그 밖의 어떤 것을 생각.
6. 인지적 문제해결: 스트레스 요인을 수정하고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식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들-상황집중, 문제해결, 분석, 학습, 현실지향, 정보처리, 의사결정.
7. 인지적 재구조화: 스트레스의 특성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바꾸려는 생각들-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측면 강조, 희망적인 사고, 보상에 대한 생각, 자신을 믿음, 자신에게 괜찮다고 함.
8. 감정표현: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적, 언

- 어적인 공격의 다른 행동-느낌 표현, 울음, 감정이입.
9. 인내: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그것의 결과를 수용하는 행동-통제포기, 복종, 동의, 자신을 공포에 노출, 참음.
  10. 정보추구: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관련한 행동-정보추구, 조사, 접촉, 질문, 사전 준비, 주의깊은 행동, 탐구.
  11. 고립활동: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고자 하는 행동-자아고립, time-out, 특정한 장소에 가기, 배척.
  12. 자아통제활동: 긴장을 감소하거나 자신의 행동 또는 정서들을 통제하는데 관련한 행동이나 인지-행동조절 지각, 감정조절 지각, 감정관리, 자아위로활동, 긴장 감소시키기, 먹기, 마시기, 자기과괴, 이완, 반복적인 행동.
  13. 사회적 지지: 개인의 존재를 추구하는데 관련한 비공격적인 행동-신체, 정서적 지지, 또래나 전문가에게 말하기, 대화, 타인과 같이 있기.
  14. 영적 지지: 보다 높은 존재에 호소를 제안하는 행동 -기도하기
  15. 스트레스 요인 수정: 스트레스 요인을 경감하거나 스트레스의 특성을 수정하려는 비인지적 행동-타협, 갈등경감, 상황바꾸기.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1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눈 Ryan-Wenger(1992)의 하위영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새로운 척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아동 후기(초등학교 4-6학년)는 저학년때와는 달리 부모나 선생님,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당하며

기대를 받기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생겨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이므로 아동들이 심리 및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스트레스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Elder & Caspi, 1988; 한미현, 199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

표집방법은 유의 표집으로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고루 분포되도록 K 지역 교육청을 선정하여 그 안에서 추출한 2개의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학생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절차

아동들이 행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 1) 제 1단계: 대처행동의 이론적 개념 및 선행 연구고찰

선행 연구자들의 대처행동 하위영역을 검토하여 가설적인 구조를 설정하여 5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아동학교수 3인과 관련분야 교수 2인에게 문항의 적합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받는 과정에서 52개 문항외에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문항을 첨가할 것이 요구되었다.

##### 2) 제 2단계: 문항의 제작 및 예비조사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조사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작하기위해 제 1단계에서 선정된 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개방형 질문을 결들인 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대처행동을 알기 위해 1996년 12월 11일-14일간 12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지 배포를 병행 실시하였다. 그 응답의 결과에 기초하여 Ryan-Wenger(1992)의 하위영역을 참조하여 89문항을 선정하였다.

## 3) 제 3단계: 실증적 조사

1, 2단계를 거쳐 선정된 89문항에 대한 실증조사로써 1997년 3월 5일 강동구 소재 초등학교 4, 5, 6학년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3월 10일 492부를 회수하여 4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써 아주 그렇다에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기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문항 양호도는  $\chi^2$  검증을 한 후, 그 지수로써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문항 양호도 검사의 검증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개별 문항과 척도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이상의 모든 과정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표 1>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보인다. 연구 대상중 남아가 52.8%, 6학년 36.4%이었다. 출생순위는 맏이가 56.0%나 되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거주가 65.0%를 차지하였다. 핵가족이 84.9%이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 46.4%, 어머니는 고졸 57.2%로 다수를 차지 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를 참조해 8가지로 세분하였는데 이를 직종별로 재분류하여 생산기능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전문직으로 4단계의 직업의 위계를 구분하였다. 아버지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판매서비스직이 56.6%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6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76.3%였다.

&lt;표 1&gt; 연구 대상의 일반적 성격

N=481			
구 분	집 단	사 례 수	백 분 율 (%)
성	남	254	52.81
	여	227	47.19
	계	481	100.0
학 년	4 학년	146	30.35
	5 학년	160	33.27
	6 학년	175	36.38
	계	481	100.0
출생순위	첫째	265	56.03
	둘째	185	39.11
	셋째이상	23	4.86
	계	473*	100.0
주거형태	공동주택	302	64.95
	단독주택	163	35.05
	계	465*	100.0
가족형태	핵가족	399	84.89
	확대가족	71	15.11
	계	470*	100.0
아버지의 직업	생산기능직	24	5.23
	판매서비스직	260	56.64
	사무관리직	154	33.55
	전문직	21	4.58
	계	459*	100.0
어머니의 취업유무	취업	162	34.69
	비취업	305	65.31
	계	467*	100.0
종교	유무	345	76.33
	107	23.67	
	계	452*	100.0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29	6.09
	고졸	185	38.87
	대졸	221	46.43
	대학원졸	41	8.61
	계	476*	100.0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63	13.61
	고졸	274	57.18
	대졸	114	24.62
	대학원졸	12	2.59
	계	463*	100.0
가계소득	100만원이하	42	9.11
	101-150만원	115	24.96
	151-200만원	169	37.67
	201-250만원	99	20.45
	251만원이상	36	7.81
	계	461*	100.0

\* 결측치는 제외한 것임.

월 평균 가계소득은 100만원 이하부터 251만원 이상까지 50만원 단위로 세분하여 조사한 결과 151만-200만원인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다.

## 2. 문항 양호도

본 척도는 Likert형 4점척도였기 때문에 응답의 상대적 반응비율이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문항 양호도를 분석하였다. 그 방법으로 응답의 총점분포의 상, 하위 25%집단에 대한  $\chi^2$ 검증을 하고 Cramer V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chi^2$ 값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Cramer V계수는 일반적인 허용수준인 .25이상(한미현, 1996)수준을 보았을 때 89개의 문항중 14개문항이 벗어났다.

또한 편별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이 방법은 척도의 총점과 개별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일정 수준의 상관계수를 가진 문항만을 양호한 문항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Guilford와 Fruchter(1973)가 제시한 .30-.80의 범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견해(김순옥, 1988, 재인용)를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 모두 기준 범위에 속하였다(〈표 2〉 참조).

## 2. 타당도

척도 구성의 타당성은 문항 양호도 검증을 통해 기준 안의 것(본 연구에서는 .30-.80)만을 골라 요인분석을 통해 검정해 볼 수 있다(홍두승, 1987).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문항과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선택하였으므로 스트레스 대처행동 영역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변수들을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는(채서일, 1991)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사이의 각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변인들이 각 요인에 최대 부하되도록 하되 한 요인내에 부하된 변인이 다른 요인에 가능한 한 낮게 부하되도록 하기 위해 직교 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한편 요인의 수 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의 기준이다. 그런데 변수의 수(질문지 문항수)가 40개 이상일 때 이 기준을 적용되면 그 결과가 매우 부정확하다. 따라서 Cattell(1966)이 제안한 스크리 검정(scree test)결과와 요인의 수를 확보하는 기준을 혼용하기로 하였다(왕석순, 1996, 재인용).

즉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수는 26개였으나 스크리 검정 결과 고유치가 수평으로 변하는 지점은 12개 요인부터였다. 그러나 요인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 통계적 결과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9개의 요인이 이론적 모형과 변수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 참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에 합당한 최종 문항은 다음의 몇가지 과정을 거쳐 선택하였다.

첫째, Cramer V계수가 .25이하인 문항은 14개(22, 24, 26, 28, 29, 31, 33, 37, 39, 43, 44, 52, 55, 76번 문항)이었다. 14개 문항을 요인부하량을 다시 검토하여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인 문항은 두고 7개 문항(22, 24, 26, 37, 43, 52, 55번문항)을 제외시켰다.

둘째,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 .30 이상이 되는 변수들을 선택한다는 기준(이영준, 1993)을 적용하면 .30 이하인 문항이 2개 문항(22, 64번 문항)이었으나 첫 번째 기준에서 22번 문항은 이미 제외되어 64번 문항만을 제외시켰다. 셋째,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의 하위 순위에 있거나 이론적으로 설정한 요인과 일치하지 않는 6개 문항(39, 41, 50, 54, 58, 59번문항)을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총 14개 문항을 제외시키고 75개 문항을 척도의 최종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각 하위 영역은 Ryan-Wenger(1992)의 하위영역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2.3%를 설명하며 스트레스 요인을 경감하거나 또는 스트레스 특성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지각을 바꾸는 문항(예. 다음에는 일이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한다)에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재평가라고 명

〈표 2〉 척도의 문항 내용,  $\chi^2$ , Cramer V계수 및 Pearson상관계수

문항	문 항 내 용	$\chi^2$	Cramer V	상관관계
1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	100.410	0.258	.3747**
2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행동을 한다.	135.271	0.300	.4212**
3	잘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무엇인가를 시도해 본다	138.897	0.304	.4906**
4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92.348	0.248	.3623**
5	되든 안되든 한번 시도해 보거나 매우 위협 부담이 큰일을 한다	104.178	0.264	.4040**
6	일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162.436	0.330	.5026**
7	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던 바를 위하여 싸운다	144.688	0.312	.4807**
8	일이 잘 풀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149.346	0.316	.4747**
9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긴다	147.644	0.314	.4656**
10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105.007	0.265	.4457**
11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본다	116.723	0.279	.4578**
12	이런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본다	120.798	0.285	.4191**
13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한다	131.527	0.297	.4400**
14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한다	141.172	0.308	.4618**
15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144.589	0.312	.4860**
16	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89.999	0.245	.3731**
17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161.169	0.328	.4626**
18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107.550	0.269	.3748**
19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	117.666	0.281	.4463**
20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럴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본다	118.177	0.281	.4337**
21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124.872	0.289	.4756**
22	진정될 때까지 밖으로 나간다	80.681	0.232	.3651**
23	혼자 방안에 있다	110.706	0.271	.4008**
24	집을 나가거나 늦게 들어온다	75.242	0.224	.3122**
25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97.340	0.255	.3431**
26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한다	60.851	0.202	.2454**
27	낙서하며 딴 생각을 한다	90.431	0.247	.3685**
28	TV나 비디오를 본다	77.876	0.228	.3635**
29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논다	71.499	0.218	.3602**
30	좋아하는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90.682	0.246	.4363**
31	운동을 하거나 TV, 만화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한다	54.808	0.191	.3249**
32	그 일을 잊기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	120.596	0.283	.4548**
33	달리거나 다른 운동을 한다	81.139	0.232	.3313**
34	될 수 있는대로 편하게 마음을 먹는다	116.697	0.279	.4887**
35	기분전환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을 자신에게 한다	177.447	0.344	.5487**
36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버린다	138.396	0.304	.4729**
37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 등 기분을 전환한다	86.235	0.241	.3761**
38	일어난 일 (또는 상황)이나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160.325	0.327	.5135**
39	그냥 가만히 있다	71.750	0.219	.2732**
40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105.483	0.265	.4208**
41	어떤 대책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무슨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다려 본다	158.887	0.326	.4619**
42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105.267	0.266	.4423**
43	어쩔 수 없으므로 체념하고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76.117	0.226	.3217**
44	될대로 되라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다	88.964	0.241	.3611**
45	일부러 무관심 한다	102.368	0.261	.3792**



<표 2> 계속

문항	문항 내용	$\chi^2$	Cramer V	상관관계
46	포기하고 잠을 잔다	119.140	0.281	.3874**
47	화가나서 운다	113.124	0.274	.4021**
48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	97.329	0.354	.3865**
49	그 일을 잊으려고 다른 재미있는 일을 생각한다	175.716	0.343	.5160**
50	그 상황을 피한다	146.952	0.313	.4264**
51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112.707	0.274	.3956**
52	보통 때보다 오래잔다	89.148	0.244	.3143**
53	잠시 거기에서 물러나 있다.(휴식을 취하거나 휴가를 갖는다)	114.551	0.277	.4395**
54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그것에 대하여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165.645	0.333	.4386**
55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82.007	0.234	.3305**
56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112.098	0.275	.3955**
57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125.106	0.289	.4554**
58	다른 사람이 동정과 이해 해주기를 바란다	145.934	0.311	.4883**
59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44.040	0.311	.4926**
60	신의 도움을 바란다	163.024	0.330	.5077**
61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147.855	0.314	.5276**
62	운으로 돌린다	99.334	0.258	.4328**
63	그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179.094	0.345	.5306**
64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위로한다	139.232	0.306	.4546**
65	왜 이런 일이 생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	189.493	0.358	.5448**
66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171.972	0.341	.5004**
67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갖는다	154.292	0.322	.5167**
68	이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안한다	139.718	0.306	.4289**
69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55.131	0.322	.5397**
70	그 일이나 상황을 밝은 쪽만을 보려고 한다	156.849	0.324	.4918**
71	새로운 신념을 갖는다	171.247	0.337	.5499**
72	궁지를 갖고 꾀꾀이 버티어 나간다	169.152	0.335	.5627**
73	다음에는 일이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193.840	0.361	.5579**
74	화풀이로 물건을 던진다	130.248	0.294	.4162**
75	귀찮고 짜증이 나서 신경질을 부린다	132.906	0.297	.4538**
76	나보다 어리거나 약한 애에게 화풀이를 한다	77.479	0.228	.3362**
77	방문을 광 하고 닫거나 소리를 지른다	125.106	0.288	.4322**
78	욕을 한다	118.771	0.281	.4217**
79	때리거나 욕설을 한다	103.985	0.263	.3678**
80	혼자서 벽을 차거나 욕을한다	126.663	0.290	.4319**
81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화를 낸다	126.389	0.290	.4498**
82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99.814	0.258	.4001**
83	원망을 한다	125.202	0.288	.4805**
84	어른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바라면서 운다	117.749	0.280	.4362**
85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면서 운다	116.393	0.278	.4511**
86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말로써 표현한다	122.772	0.287	.4870**
87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137.030	0.427	.4792**
88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151.997	0.318	.4920**
89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131.474	0.295	.5190**

〈표 3〉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요인분석

변수	F 1	F 2	F 3	F 4	F 5	F 6	F 7	F 8	F 9	<i>h</i> <sup>2</sup>
C73	.62221	.01347	24674	.05614	.14823	.06056	.05428	.08062	.08916	.31641
C87	.58471	.04811	.05478	.16035	.09380	.12858	.07949	-.04630	-.10058	.38337
C49	.58335	.03171	.03273	.11145	.30097	.10901	.08364	-.04094	-.04669	.37052
C71	.57656	-.05298	.34645	.03578	.22848	-.29858	-.02259	.00215	.14004	.43772
C67	.56922	.02149	.13256	.05505	-.28488	-.09001	.21569	.04170	.04230	.32596
C72	.54456	.02778	.31785	-.01514	.14078	.07537	.01192	.22183	.19146	.44237
C88	.54256	.06231	.14588	.08050	.19450	-.08955	.27011	-.08055	.00588	.32893
C85	.54091	.05947	.25651	.17126	.00424	.02147	.20715	.05311	-.07923	.47357
C69	.51219	.06674	.04499	.15557	.10274	.16112	.31823	.14988	-.05279	.40345
C89	.50936	.11179	.10007	.08741	.21554	-.09453	.29780	.12433	-.07537	.32162
C66	.49077	.11892	.19787	.22839	-.12480	-.10868	.14818	.05659	-.00992	.46789
C34	.48623	-.01316	.19564	.11814	.32527	-.03662	.02746	-.12462	-.12813	.43333
C36	.48132	.10647	.11766	.12777	.38024	.03271	-.13605	.15240	-.16254	.39397
C40	.47165	-.03467	.29946	.11077	-.30471	.06572	-.05662	-.07874	-.16501	.41857
C70	.46816	.03275	.17011	.06372	.11347	.12032	.20575	.02748	.08974	.47864
C42	.44785	.05935	.25665	.19370	-.03124	.18292	.00685	-.11231	-.04417	.46163
C38	.44257	.04445	.15461	.26265	.22144	.09416	.01459	.07724	.09185	.45826
C50	.42743	.05552	.11298	.03929	.01462	.29413	.04994	.19486	.02614	.47154
C68	.39219	.08270	.13049	-.18738	-.15857	.23046	.14119	.08958	.12706	.35881
C59	.38647	.09717	.19237	.34781	.06392	-.08981	.16018	.16811	-.16527	.35081
C54	.34179	.04898	.12375	.18315	.17681	.30640	-.02326	-.16823	-.08078	.40654
C55	.33142	.02964	.10328	.12755	.16360	.30907	-.04803	-.03600	-.20972	.33584
C78	.05226	.78988	.01977	.02203	.05734	.09443	.06219	.00944	.02757	.46411
C80	.02642	.77863	.06564	.03011	.08373	.12737	.01760	.00999	.09558	.34683
C79	-.05197	.75147	.05659	.05649	.05833	.15719	-.00942	-.06007	.15050	.40375
C77	.09312	.73062	.02116	-.02855	.06187	.15053	.01618	-.11747	-.07747	.35825
C81	.09086	.70313	.08536	.05097	.05410	.00790	.08715	.15139	.05071	.27586
C82	-.00924	.66667	.06708	.09182	.02921	.12449	.12471	.16201	-.07861	.48822
C83	.04514	.66421	.11009	.02663	.05262	.13002	-.12650	.10255	.24320	.43547
C83	.11544	.63191	.08127	.03156	.09954	-.00558	.16140	.18333	.13643	.45382
C75	.15518	.63052	.01589	.00640	.00948	.08879	.15378	-.32944	-.15389	.50048
C76	-.01760	.62409	-.02089	.08831	.04512	.14739	.06052	-.04900	.07930	.36684
C4	.12129	-.00438	.59285	.07839	-.04092	.13101	.01533	-.05923	.20687	.43308
C6	.25437	.04668	.56640	.12143	.16583	.03579	.08317	.06491	.00547	.45920
C8	.36364	.02472	.53540	.07190	.06988	-.04125	.07256	-.11894	-.15134	.44428
C13	.13929	.04621	.51579	.21804	.07415	.06616	-.12225	.09473	-.5005	.48697
C9	.21302	.08087	.51058	.29704	.03808	.02799	.02229	-.00035	-.01176	.32099
C14	.25057	-.02849	.50733	.29270	.0736	.07598	.02468	-.01251	.01673	.36326
C1	.04500	.12435	.50422	.10984	.00331	.09461	.05823	.00033	.14274	.40070
C3	.20444	.07034	.48706	.15674	.20293	.03456	.06762	.11367	.05021	.36783
C2	.12456	.11116	.46210	-.07401	.08557	.00488	.18634	.22783	.20616	.28864
C21	.29659	-.02948	.45754	.18682	.12861	.17604	-.07997	.13877	-.01674	.35208
C7	.17319	.16151	.43692	.12712	.12905	.14279	-.01887	-.02444	.07179	.32689
C20	.32938	-.01361	.41487	.10655	.14776	-.01974	.16154	-.10278	.0170	.39620
C10	.21201	.08100	.40942	.25414	.05871	.04397	.09898	.09395	-.11786	.36790
C5	.02010	.09589	.36853	.19278	.10578	.33473	.02000	.02733	.13784	.33729
C41	.25264	.12358	.36689	.16767	.05981	.20838	.07008	.14932	.01912	.38074
C18	.10835	.03972	.09541	.65566	.04273	.04914	.00975	.04805	.11217	.37132
C11	.17832	.09252	.16030	.61748	.05908	.08827	.05691	-.01601	.07452	.46811
C16	.07762	-.02644	.25777	.59516	.02568	.18290	-.00975	-.02405	.02225	.32796
C12	.12177	.04650	.18744	.56996	.04874	.06355	.22297	-.00354	.01464	.40395
C17	.20971	.02452	.18000	.56595	.13196	.16269	.01559	-.01368	.12914	.30476
C15	.20661	.07791	.28026	.55735	.19710	-.01122	.01225	.03641	.00440	.36279
C58	.25951	.17124	.16492	.39489	.05183	-.10279	.15577	.36277	.10348	.32859
C57	.25931	.02788	.24342	.36008	.04570	-.01586	.14325	.08362	.28963	.30752
C19	.23002	.09437	.22433	.30591	.00867	.18879	.22149	.05230	-.06978	.32320
C28	.14950	.02089	.07261	-.00306	.66121	.00074	-.14931	.01964	.01636	.37153
C31	.07328	.03944	.07725	.01274	.64253	-.01598	.12332	-.09118	-.08253	.45926
C29	.15008	-.00066	.15972	.09340	.57377	.05782	.12095	-.20332	.10471	.41017
C30	.18212	.08302	.12286	.04064	.53324	-.03177	.07719	.29490	.02837	.49968
C37	.16735	.15987	.08719	.14295	.44531	.14772	.00506	.04641	-.13070	.65466
C35	.35800	.15429	.25381	.11743	.41179	.06924	.06943	.13308	.13116	.41425
C53	.23635	.21526	.00515	.06678	.40267	.22524	.07676	-.01704	.19116	.53387
C32	.28342	.08345	.13812	.12482	.37045	.08412	-.10223	.30007	.00950	.33879
C27	.11091	-.17768	-.05698	.07993	.33542	.26419	.07343	.13532	.12971	.44322
C44	.01823	.32200	.00543	.08449	.08873	.50694	.01010	.13445	.04439	.39896
C39	.02640	.06605	.13678	-.01950	-.13448	.50170	.09215	.27057	.15834	.49207
C45	.14754	.26197	.05891	.05335	.05405	.46379	-.11169	.20155	.00823	.33515
C46	.06038	.20988	.04250	.06721	.24746	.43038	.09387	.16491	.02832	.45605
C56	.23111	.17788	.13035	.10267	-.02096	.42757	.15503	.00439	-.05746	.33173
C51	.39393	.03823	.08286	-.01340	-.04456	.42102	.23193	-.07610	.03794	.55167
C26	.06752	.26337	.13699	.06545	.17736	.40238	.08023	-.23944	-.06437	.51008
C43	.32172	.03888	.04866	.17342	-.00179	.37728	-.17700	.11987	-.00983	.49440
C24	-.05588	.27571	.19897	.09861	-.03794	.34878	.08283	-.01759	.29686	.52180
C52	.01056	.10002	.06819	.07166	.19027	.34747	.34318	-.03395	.09486	.58577
C61	.25006	.13708	.07876	.14592	.18543	.07021	.70357	.10626	.01507	.43415
C60	.29157	.09207	.11689	.07062	.17856	.03720	.59737	.17228	.10625	.39509
C63	.31417	.09733	.22758	.04359	.20329	-.05293	.54084	.18451	.03647	.64368
C62	.19461	.12496	.07212	.12756	.14042	.21067	.51837	-.07532	.02795	.62538
C64	.27421	.14856	.29022	.08322	-.10335	.15138	.29303	.13453	.11320	.64496
C23	.08251	-.11826	.13756	.05412	.07148	.26013	.06731	.57585	.11208	.55002
C25	-.01873	.19605	.18925	.02323	.07448	.23553	.02380	.51577	.01677	.55102
C47	.16320	.30672	.07159	.05653	-.05851	.01824	.13487	.45627	.14689	.50845
C48	.13145	.21836	.04998	-.03941	.03148	.33271	.08480	.41875	.08992	.65267
C84	.15490	.26207	.04782	.20083	-.02752	.07819	.09380	.17193	.68713	.53614
C85	.17090	.31394	.06624	.25003	-.03429	.02416	.08145	.24714	.05167	.37721
C86	.31150	.24964	.15476	.15476	.01007	.09716	.02610	.00331	.37187	.41682
C33	.20762	-.05717	.24675	.08523	.32125	.18451	-.10034	-.25359	.32613	.45131
C22	-.04850	.20697	.22364	.13770	.25110	.25906	.04270	.07409	.29016	.45482
고유치	17.98211	5.84361	3.07699	2.30059	2.08985	1.88315	1.65554	1.61305	1.58037	
전체변량	20.2	6.6	3.5	2.6	2.3	2.1	1.9	1.8	1.8	
누적변량	20.2	26.8	30.2	32.8	35.2	37.3	39.1	40.9	42.7	

명하였다. 두번째 요인은 감정적 공격으로 명명했으며 기분 나쁜 것을 발산하기 위해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예. 욕을 한다). 세번째 요인은 문제지면적 행동으로 명명했으며 스트레스 요인을 수정, 예방, 제거하기위한 방식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예.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네번째 요인은 문제해결적 정보추구였으며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예.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다섯째 요인은 기본전환적 행동으로 명명했으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들이다(예. TV나 비디오를 본다). 여섯째 요인은 회피적으로써 스트레스로부터 멀리하려는 계획된 시도로써 고립과는 다른 행동(예. 잠)과 스트레스 존재를 인정하기를 피하는 계획된 인지적 시도를 하는 것이다(예. 될대로 되라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다). 일곱번째 요인은 영적지지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보다 높은 존재에게 의존하는 행동이다(예. 신의 도움을 바란다). 여덟번째 요인은 감정완화적 분리로 명명하였다. 이는 다른사람과 격리되고자 하는 행동이다(예. 혼자 방에 있는다). 마지막 요인은 감정표현으로 명명하였으며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는 다른 행동이다(예. 어른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바라면서 운다).

### 3. 신뢰도

요인 분석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보통 Cronbach- $\alpha$ 를 산출함으로써 검증한다(이영준, 1993). 본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계수 .95로서 각 요인별로는 .62-.89의 범위가 나타났다(표 4) 참조). 따라서 Price와 Mueller (1986)가 제시한(왕석순, 1996에서 재인용) .60 이상

〈표 4〉 요인별 Cronbach의 계수( $\alpha$ )

요인	1	2	3	4	5	6	7	8	9	전체
$\alpha$	.86	.89	.78	.76	.74	.75	.68	.62	.72	.95

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그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을 추출해내어 척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들에게 스트레스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라면 스트레스의 경험여부나 수준을 파악하는 것과 아울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행동의 유형을 알아내어 어떠한 대처행동이 효과적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스트레스 경험이나 수준과 대처행동의 관계 또는 대처행동과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구축된 대처행동 척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처행동의 이론적 개념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척도를 구성할 문항을 일차적으로 수집하고 또한 기존 연구들이 포함하지 못한 문항을 조사하기위해 예비조사로써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89개 문항을 선정한 후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항 양호도 검증과 요인 분석에 의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9개 요인 75개 문항으로 최종 문항이 선정되었고 Cronbach- $\alpha$ 가 .95로써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자료수집에 있어 유의 표집을 하였으므로 이 척도를 일반화하여 사용하기 전에 다수의 표준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발달적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유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를 포괄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서구에서 제작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사용해 왔으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국내의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김순옥(1988). 부모 자녀간의 응집성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과학*, 28(1), 성균관대 사회과학 연구소, 115-131.
- 2) 영교(1995). 부모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연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송의열(199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 행동 연구. 건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양병환(1991). 스트레스의 개념. *정신 건강 연구*, 10, 한대정신건강연구소, 1-9.
- 5) 오명희(1994).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간의 연구. 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왕석순(1996). '현대의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65-83.
- 7) 윤유경(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 양상의 발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이소은(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이영준(1993). Spss Pc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서울 : 석정
- 10) 이정미(1996).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유형.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전성혜(1989).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대처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친민필(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연구. 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채서일(1991).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 범문사.
- 14)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한상근(1993). 국민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71-182.
- 17) \_\_\_\_\_(1987). *사회 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18) Band, E. B.,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19) Brenner, A.(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Massachusetts: D.C. Health and Company Lexington.
- 20)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L.(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21) Folkman, S., & Lazarus, R. 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 22) Frederic, W., & Ilfiedl, J. R.(1980). Coping style of Chicago adult : Ef fectiveness, *Arch Gem Psychiatry*, 37, 432-456.
- 23) Kagan, J.(1983). Stress and coping in early development. In N.Garmezy and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 McGraw-Hill.
- 24)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s Publishing Co.
- 25) Mederios, D. C., Poter, B. J.,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26) Moos, R. H., & Billings, A. G.(1984). Coping stress & social resource among adult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 27) Ryan-Wenger, N. M.(1992). A taxo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agies : A step two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 62(2), April, 256~263.
- 28) Selye, H.(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 McGraw-Hill co.